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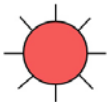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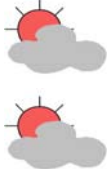





















































## 2013 일본의 업종별 기상도

업종	경기 상황 예상			코멘트
	2012년도 (전망)	2013년도 (전망)	2014~15년도 (전망)	
1. 철강				조강생산량은 완만하게 감소하겠지만, 기업업적은 '12년을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될 전망.
2. 종이 · 펄프				종이의 국내 수요는 전자 매체 이전으로 향후 계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해외사업 강화와 각 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수익이 완만하게 증가할 경향.
3. 석유				수요 축소는 계속되지만 '14년도 이후 과잉설비의 삭감이 진행되어 기업업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4. 화학				'13년도 일본 국내 에틸렌 생산량은 아시아 시장의 석유제품 수급 개선으로 4년 만에 증가. 기업업적은 종합과학, 합성섬유 모두 증익이 될 전망.
5. 의약품				노령화로 인해 수요 확대가 계속되지만 '14년 이후 약품 가격 개정이 예정되어,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임.
6. 식품				생산액은 증가하겠지만 '14년 이후는 가격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이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
7. 자동차				세계 수요는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과거 최고의 기록을 경신. 일본 자동차기업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8. 기계 (산업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수주액은 내수 축소분만큼 중국과 유럽의 해외수요가 증가. 공작기계는 해외수요의 확대가 지속될 전망.

업종	경기 상황 예상			코멘트
	2012년도 (전망)	2013년도 (전망)	2014~15년도 (전망)	
9. 일렉트로 닉스 (종합가전/ 종합전기)	 	 	 	'13년 이후는 종합적으로 시장이 축소, 이에 따라 반도체의 성장도 둔화. 전자 대기업들은 일렉트로닉스 사업을 중심 으로 비용 삭감을 추진하여 수익을 확보할 전망.
10. 통신				스마트폰 이용자가 계속 확대되어 이동통신이 성장을 지속, 고정통신의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
11. 방송				TV 광고 시장은 소비증세에 따른 선 행 수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민간 방송국들은 제작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확보.
12. 정보 서비스				사업영속계획(BCP)대책과 클라우드 관련의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 '14~15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소폭의 상승이 예상.
13. 백화점				타 업체와의 극심한 경쟁으로 시장 축소가 예상. '14년도 이후 소비세 증가로 구매력 축소가 가속될 전망.
14. 슈퍼				신규고객 개척과 경쟁전략 강화로 대기업의 출점은 증가하지만, 편의점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전체적으로 이익이 감소될 전망.
15. 편의점				각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점하여 판 매액이 증가. 그러나 '14년을 정점으로 이익이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16. 가전 양판점				'13년도는 소비증세에 따른 선행 수 요로 가전제품의 판매는 증가. '14년 도 이후는 상품 단가의 하락으로 시장이 축소될 전망.

업종	경기 상황 예상			코멘트
	2012년도 (전망)	2013년도 (전망)	2014~15년도 (전망)	
17. 육운				'13년도는 대지진 부흥을 제외한 관광수요 축소로 건설관련화물이 감소. 단순 수송 주체인 중소기업이 침체하는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주력하는 대기업은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18. 해운				운임 하락, 사업 환경개선이 불투명하여 수익성은 저하. '14년도 이후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송량이 증가할 전망.
19. 항운				'13년도는 일본 방문 수요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14년도 이후에는 국제선 화물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수익이 지속될 전망.
20. 건설				부흥 수요는 '14년도 이후 체감, 격화되는 경쟁 환경과 노무비용 상승으로 이익률을 압박할 우려가 클 것임.
21. 주택				소비증세에 따른 선행 수요와 그 반동으로 '13~14년도는 큰 영향을 받겠지만 '15년도에는 주택사업이 회복되면서 수일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22. 부동산				아파트 판매는 침체가 계속되지만 소비증세 이전의 선행 수요로 약간 회복, '14년 이후에도 기업업적이 완만히 개선될 전망.
23. 인재파견·하청				파견 노동자 수는 '12년도 이후 서서히 회복, 대기업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24. 호텔				'13~15년 객실가동률은 내수 감소와 일본 방문객의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지만, 대기업은 설비갱신 투자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업적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주) 각 섹터의 경기 상황 예상은 수요·생산동향이나 기업업적의 증감률·수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임.

출처: 미즈비시도쿄UFJ은행